

국민의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총력전

박해자·이게호·김영록 '더민주' 잔류...수도권도 잠잠

내일 창당 앞두고 '-3'...박지원·최재천 의원 영입 총력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국민의당은 2일 창당 전까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제3당으로서의 위상 확립에 나서는 한편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는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역 국회의원들의 추가 영입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당장, 합류가 예상됐던 광주의 박해자 의원이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선언한다. 전남의 이게호, 김영록 의원은 사실상 잔류로 돌아섰다. 여기에 최소 1~2명 합류를 예상했던 수도권 의원들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막판 맨투맨 설득과 읍소를 불사하는 등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예상과 달리 호남과 수도권 의원들의 합류가 이뤄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2일까지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최소한 15일까지는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5일까지 20석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야 국민의당은 정치자금법상 85억 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현재 국민의당 의석수는 17석으로 목표 달성까지는 3석이 모자란 상황이다. 국민의당에서는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박지원 의원과 최재천 의원의 합류를 이끌어내는 한편 수도권에서 1명을 더 영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당장, 박지원, 최재천 의원이 국민의당 합류 여부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다 수도권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의 체제 정비에 마쳐지면서 탈당 결행에 어려움이 큰 현실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2일까지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다면 창당의 무게감이 달라지게 된다"며 "당장, 창당과 함께 지지율 하락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전체적인 총선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 잔류를 선언한 박해자 의원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민주에서 종갓집 만머느리의 심정으로 깨끗하게 야권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도 당선을

위해서는 탈당을 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전화로 아찔을 맞았다"며 "총처럼 회복되지 않는 당에 대한 광주의 민심 앞에 당선만을 위한 길을 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 박해자를 있게 해준,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60년 전통의 더민주를 외면할 수 없었고 그 심장이 광주가 오해해가는 현실에 편승할 수는 더더욱 없었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 "선거구획정 1월국회내 처리를" 국민의당(가칭)을 이끄는 안철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당사에서 국회 파행에 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른쪽은 주승용 원내대표, 왼쪽은 장병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김종인 광주 만찬 불참한 윤장현 시장

국민의당 합류 주목...이낙연 지사는 참석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의 광주 방문 과정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의 행보가 미묘한 온도 차를 보여 주목된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 개입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이 지사는 김 위원장의 만찬 장소에 참석하진 않으나, 윤 시장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 참여와 관련해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5·18 관련 단체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더민주 소속 이낙연 전남지

사와 광주·전남 국회의원, 광주지역 구청장 등이 참석했지만, 윤장현 광주시장은 불참했다.

지난 28일 더민주 측이 행사 참석 여부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하자, 윤 시장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에서 불참은 예견된 상태였다.

'안철수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는 윤 시장은 앞서 "변화 흐름을 지켜보고 때를 놓치지 않고 판단하겠다"며 탈당 검토를 시사했다. 이 점에서 국민의당 창당 이후 더민주 탈당에 이은 국민의당 합류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지역정계에서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준영·김민석 '민주당' 공식 통합

국민의당 문병호 "하나되자" 축사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가칭)과 김민석 전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이 지난 30일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신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통합대회를 개최했다. 박 전 지사와 김 전 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했고, 당명은 '민주당'으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이 당명을 바꾸는 합당을 금하기 때문이다.

박준영 공동대표는 취임사에서 "바른 정치로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가 번영하고 민족이 융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공동대표는 "이합집산의 정치공학보다는 정체성에 기반한 정책경쟁으로 반드시 야당 바로 세우기에 핵심주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통 야당의 정체성과 역사성, 중도개혁의 가치를 확고히 수호하고 정책 정당으로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선도하겠다"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주도하는 국민의당과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합대회에는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참석,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쳐 야권 재편과 정권교체의 길에 하나가 되자"고 축사했다.

탈당 후 제3지대에 머무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트위터에 "이제 국민의당과 중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큰 차이는 없고 작은 차이가 있다면 소통과 조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jkpark@

4·13 총선 현장

이병훈 "더민주 복당해 광주 동구 출마"

4~5일 공식 기자회견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해 오는 4·13일 총선에서 광주 동구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다라고 31일 밝혔다. 이 전 단장 오는 2월 4~5일께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과 함께 복당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출마기자회견에서 '문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행복한 정치를 하



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 출신인 이 전 단장은 고려대를 나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 청와대 행정관, 광양군수,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행정복합도시 주민지원본부장,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대촌동에 혁신도시·인재육성 기관 추진"

정진욱 광주 남구 예비후보

정진욱 광주 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31일 "나주 혁신도시 관련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인재육성 전문기관이 남구 대촌동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전 등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정규직의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10% 수준"이라며 "이



는 인재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점도 있지만, 기업이 만족할만한 실력 부족도 한 요인이다"면서 이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면서 "그 대안으로 대촌동에 노마드 유니버시티(Nomad University, 유목민 대학) 개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정성, 광주 남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안철수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출신의 서정성 광주 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남구 진월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조정국 국민의당(가칭) 광주시당 공동위원장, 김태봉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전 광주YMCA이사장),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광주사회복지사협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선거사무소 개소를 축하했다.

서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재난과



어려움의 현장에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며 "병을 고치는 의사에서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써 구태, 악습으로 얼룩진 낡은 정치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정치를 이룩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건국·양산동에 문화·복지센터 건립"

최경환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

최경환 광주 북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31일 민생 분야 관련 권역별(건국·양산동)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산·건국지역은 최근 첨단 2지구, 양산택지지구 개발로 거주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복지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양산 호수공원 일원(3500m)에 ▲도서관 ▲공연장 ▲복지



센터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 센터를 건립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면 주민의 문화활동이 증진되고 이 지역에 부족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열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